# 잘츠부르크페스티벌

1) 개최지의 특성

잘츠부르크는 서쪽의 스위스와 동쪽의 슬라브 국가들, 또 북쪽의 독일과 남쪽의 롬바르디아의 중간에 놓여 있다. 수도 빈에서 서쪽으로 310km떨어져 있으며 인구는 약 15만 명이다. 잘츠부르크 구시가지는 이탈리아풍의 바로크 건축들과 정원, 도나우 강으로 흘러가는 잘차흐 강이 이 도시에 매력을 더하여 준다.

잘츠부르크는 음악가 모차르트의 고향으로 유명한 음악도시이다. 잘츠부르크 구 시가지의 게트라이데 거기9번지는 오스트리아 구기가 길게 늘어져 있고, 모차르트 생가가 잘 보존되어 있다. 모차르트 생가는 현재 모차르트 박물관 및 자료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가 사용하던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의 악기와 자필 악보, 초상화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잘츠부르크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로 유명한 도시이다. 영화 속에서 마리아는 게일 대령의 아이들을 데리고 호엔잘츠부르크성과 아름다운 시가지를 배경으로 노래 부른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관광 상품화하여 시내에 있는 극장식 레스토랑에서는 매일 밤 사운드 오브 뮤직 쇼가 벌어지고, 영화의 무대가 되었던 곳을 방문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 투어’도 있다.

2) 축제의 역사

세계1차대전 이후 1919년에 라인하르트감독과 시인이자 극작가인 호프마쉬탈은 작곡가와 무대 디자이너와 경영자 이자 감독인 프랑크크캇 등과 힘을 합쳐 페스티벌의 기초들 다졌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마침내 1920년 8월 22일에 라인하르트의 제작으로 호프만쉬탈의 작품 ‘예다만’이 대성당 광장의 계단에서 공연됨으로써 처음 시작되었다. 이 작품은 매년 재공연 되고 콘서트의 시리즈가 추가되면서 1922년 첫 번째 오페라가 되었다. 여름 승마학교였던 펠젠라이트슐레는 1925~7년에 전문적인 공연 조건과 다양한 레퍼토리가 가능하도록 개축되어 1926년 이래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잘츠부르크는 곧 이 시대의 최고의 연출가, 지휘자, 배우, 성악가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잘츠부르쿠페스티벌은 매년 7월 하순에서 8월 말까지 약6주간 열리는데 개최일자와 기간은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잘츠부르크페스티벌의 대표적 공연장은 대축제 극장과 소축제 극장, 펠젠라이트슐레 등 세 개이며 이외에도 주립극장, 대성당 등의 실내 공연장이 있다. 대성당 앞 광장은 잘츠부르크페스티벌이 처음 열렸던 곳으로, 축제 기간 중 야외공연장으로 사용된다.

4) 축제의 정신

잘츠부르크 음악제에서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데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첫째 고전적 유산을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현대적 표현방식을 통해 전달한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한다.

둘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형태로 보여준다.

셋째, 충분한 공간이 현대적 작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모든 이벤트들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젊은이들을 위한 싼 가격의 티켓 수를 늘리고, 새로운 공연 장소들을 확보한다.